

<사랑의 편지>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우리 밀알들에게 ...
 젖 먹이 때부터 보았던 너희들이 이제는 장성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올 테니 걱정 말고 건강히 잘 계시라며 떠난 청년들이 10여
 명 가까이 군복무 중에 있구나.

처음 보낼 때는 어설퍼 보이기만 했는데 휴가 나온 모습 속에서 이제
 는 제법 군인티를 보이는 것이 대견하기만 하다.

너무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들아!

어제는 스승의 날이라고 성광이가 전화를 통해 음성을 들려주는데 언제
 쯤 휴가를 나올 수 있을 것 같냐는 물음에 지금도 휴가를 나가고 싶
 지만 연훈이와 8월에 있을 수련회를 맞추기 위해서 꼭 참고 있다는
 너에 대답이 기특하기도 하고 더욱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단다.

속히 너희들에게 면회를 가야겠다.

오늘도 병관이가 또 교육 중에 대답을 잘해서 전화찬스를 받았다고
 하면서 씩씩한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무한 긍정의 밝은 병관의의 모습
 이 전도사님으로 웃음짓게 했단다.

그럼에도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네.

초여름인데도 벌써 30도를 웃돌고 있어서 많이 걱정이다.

겨울에 눈을 보면 군에서는 얼마나 눈 쓸려고 힘들까?

여름이면 얼마나 또 더울까?

깊신장수와 우산장수의 부모처럼 오늘도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24개월이라는 시간들이 힘들고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청년들
 도 있겠지만 결코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한층 더 듬직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사회를 향해 진출해 나가는 너희
 들의 앞길에 좋은 밀거름이 될 것이다.

2016년도 표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자』
 (엡 4:12)

NEW
순복음Life
 제2호

발행일 : 2016. 5. 29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쉽~



주님 옆에 잠깐만 쉬게요~

그렇게 어렵,

하지만 아주 편안히 쉰~옥 쉬어야 할단다.

그리고 너의 걱정 근심 나의 주머니 속에 두는 것 잊지 말고...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1~3

<이달의 신앙 간증>

-구옥순 집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이라는 암흑기 있었듯이 나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암흑기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구하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받는 주님의 은혜를 나는 주로 듣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지치기도 했지만 그 순간 나로 하여금 견디며 인내로 소망을 품게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42:5].” 출퇴근하며 걸어서 오고가는 길에 수시로 읊조리며 되씹고 또 되씹으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난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너무나도 잠잠했던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셨고 너무도 부족하고 미련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이었음을 말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42:5].”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던 주님의 은혜를 올해 들어서는 나의 눈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딤후2:6].”라는 말씀을 심방 때 받은 날부터 이 말씀을 잊지 않으려 하였고, 또한 주님을 처음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 저리게 느꼈던 순간 이 못난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하여 “주님!! 열심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되새기며 나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편안함을 쫓으려 할 때 게을러지고 머뭇거리던 나의 손길과 발길을 해이해진 마음을 다시금 추스르고 맡겨진 일에 대하여 채찍질하는 말씀과 고백이 되었습니다.

근 20년의 세월을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말고는 사회활동이 전혀 없기에 알고 있는 인맥이라고는 성도님들뿐인 상황에 한달 한달을 채우시며 붙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눈으로 봅니다.

153은 제가 입사했던 기수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 가득히 찬 큰 물고기 백천세 마리를 잡았던 것처럼, 환경적으로 능력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이 일을 통해 나의 삶을 나의 하는 일들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2016년입니다.

끝으로 스스로 다짐 해 보기는 형통한 날에 자만하지 않으며, 다시금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가 나를 엄습한다 해도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평안을 잃지 않겠습니다.



웃자웃자(유머)

-억울한 할때-

주일에 목사님께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짜증이 난 목사님!

버럭 화를 내며 청년 옆에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던 할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아, 할머니! 자고 있는 그 청년 좀 깨우세요.”

그러자 애꿎게 야단맞았다고 생각한 할머니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재우긴 자기가 재워 놓고 왜 날보고 깨우라 난리여!”



-목사는 약장사-

인민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 즉결 처형하고 있었다.

자신의 심문차례를 기다리던 목사는 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떡해야 합니까?’

그러자 ‘원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응답이 왔다.

드디어 인민군이 물었다.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목사는 자신 있게 “나는 약장수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무슨 약을 파오?”하고 인민군이 재차 물어왔다.

목사는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하고 말했다.

성도 알아보기



1. 이름과 나이
김형진 , 1969년 8월 13일
2. 인성자 집사님과 어디서 처음 만나셨으며 그때의 첫인상
서로 당진에서 일했고 몇 번 안면이 있던 차에 교회 집사님의 소개로 만남
뚝 부러지는 성격
3. 인집사님과 첫 키스는 어디서 ? 그리고 왜 하셨어요?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좋아하고 예뻐서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아내
5. 인집사님의 신앙은 남편분 보시기에 몇 점?
제가 보기엔 95점 (소신있고 철저합니다)
6.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집사님과 다시 결혼 하시겠어요?
네 , 당연합니다.
7. 인집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 한가지만
없어요 ,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8. 인생 사십년을 넘어선 지금 가장 후회되는 점과 잘했다 생각되는 부분
신앙생활 더 열심히 못한 것, 공부를 더 못한 것, 잘한 것은 인집사님과의 결혼
9. 내가 잘 하는 요리
라면 (요리라고 하기엔 부족합니다)
10. 나의 최대의 약점
귀가 얇다
11. 회사에서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건설 중기 , 임대업 (지게차)
12. 결혼 전 이상형? 이유는 ?
가수 이선희 , 평범해 보이며 노래를 잘해서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13. 내가 지금 이 직업을 갖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목수, 실내 인테리어
14.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그리고 그 교회 이름
초등학교 5,6학년 쯤 크리스마스 때 선물 때문에 신성감리교회에 나갔다
15. 아이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라

누구보다 교회 사랑과 형제 사랑이 많았던 너희들이기에 영육으로
도 힘들고 갈급하리라 생각한다.

그렇지라도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라.(빌4:13)의 말씀처럼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
시기에 수많은 군인들 속에서도 우리의 밀알 청년들이 지금껏 잘해
왔던 것처럼 믿음의 청년으로서 당진순복음 아들로서도 믿음의 진
보와 선한 영향력으로 당당하게 그곳에서도 나타내며 선하신 하
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손을 모
아 기도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밀알 청년들아!

너희들의 수고와 땀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나라를 지키고 있거
에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부모형제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평안하
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믿
음의 형제들이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아
무쪼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다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
고 축복한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
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1장9절)

전도사님이~~~

요즘 핫한 시사용어

▶ 암행순찰차

2016년 3월 1일부터 경찰청이 시범 운행하기 시작한 순찰차로 언뜻 보기에는 일반 검은색 승용차처럼 보인다. 보닛과 앞좌석 양쪽 문에 자석으로 경찰마크가 부착되어 있지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식별이 어렵다.

차량 내부에 경광등과 무전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경찰관이 2인 1조로 탑승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바로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차로 변신한다. 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 시범 운행을 거쳐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 설탕세(sugar tax)

탄산음료의 당 함유율에 따라 제품에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다. 영국은 어린이 비만을 줄이기 위해 설탕이 들어간 청량음료에 대해 1L 당 최대 24펜스(약 400원)의 설탕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음료회사가 투입 설탕량을 줄이거나 제품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의 설탕 섭취량이 줄어들 것이란 계산이다.

▶ 굿 보이 콤플렉스(Good boy syndr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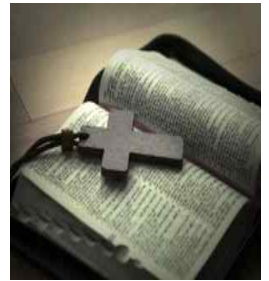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 내면의 욕구를 억압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심리장애 증상이다. 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남에게 소외될 거란 두려움을 가져 본심을 숨기다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폭력적인 성향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새로운 명칭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현판과 안내판을 교체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에 적용한다.

예화

미래의 그림은?



어떤 부인이 남편과 아들 삼형제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남편의 직업은 선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바다에서 폭풍우에 휘말려 배와 함께 최후를 마쳤다. 비보가 날아들어 왔다. 그리고 나서 세월은 흘렀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렸건만 큰 아들도 남편의 뒤를 이어 배를 탔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다. 또한 둘째 아들도 한사코 말리는 어머니 몰래 선원이 되었다가 그도 역시 얼마 후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막내아들조차 장래에 선원이 되겠다고 하였다. 어머니와 모든 친척들이 말려도 듣지 않았다. 네 사람이 바다에 미친 까닭을 몰라 이 부인은 이웃에 사는 목사님께 그 원인을 알아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한참 동안 집안을 살펴보던 목사님은 방에 걸려있는 그림과 사진을 당장 떼어내고 대신 다른 것을 걸도록 권하였다. 가슴을 설레이게 만들 정도로 시원한 바다 그림과 선장 차림의 멋있는 아버지의 사진이 아들들의 마음을 바다로 향하게 했던 것이다. 부인은 바다 그림 대신 산과 농촌의 평화로운 모습을 그린 그림을 걸었다. 얼마 후 막내아들은 선원이 되겠다는 꿈을 버리고 대신 농부가 되어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것은 무의식중에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자기 암시에 빠지고 만다.
텔레비전을 지나칠 정도로 보는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모두 광고 노래인 것들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우리의 눈이 현 세상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의 영혼 역시 세상의 욕망과 어지러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나 미래의 그림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걸어놓고 매일 바라보게 된다면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그림은 어디에 있는가? 화랑에서 살 수 있는가? 아니다 미래의 그림은 바로 성경 속에 있다.

- 배 훈 <인생을 다시 한번>

✝교회 학교 행사✝

4월 넷째주 다니엘 유초등부의 3부 순서는 레크레이션이었습니다

박두식 선생님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시간은 시종 아이들의 꾸밈없는 웃음소리, 말소리 그리고 힘찬 응원소리로 이어져 갔죠.

첫 번째 게임은 풍선 다리에 끼우고 반환점에서 요구르트 빨대로 다 마시고 돌아 오기였습니다. 평소엔 참으로 양이 적던 요구르트였는데 그날은 유난히도 양이 많던 남양 65ml 요구르트이었네요^^

순서에 나온 아이들의 얼굴은 전의에 북타 귀까지 빨개졌고 다시 뒤돌아 풍선을 낀 채로 돌아오는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 편이 반드시 이기리라는 결의의 찬 표정 그 자체이었으며, 누구랄 것 없이 모두 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었죠.



두 번째 게임은 눈 가리고 상대방 몸에 집게 붙이기였습니다.

이 게임의 의외의 복병은 4학년 재아였습니다.

재아의 게임 상대는 하영이였는데 그만 하영이의 집게가 재아의 살을 물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말고 재아는 아픔을 참지 못해 그만 울음을 터트렸고 지켜보던 선생님들은 모두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재아는 집게를 손으로 힘껏 떼어 내고는 다시 게임에 임했으며 결국 재아의 집게 13개 하영이의 집게 12개, 그러니까 집게 하나차이로 재아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재아의 값진 눈물의 승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는 우리교회의 미래이자 차세대 주님나라의 주역들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풍성한 후원 부탁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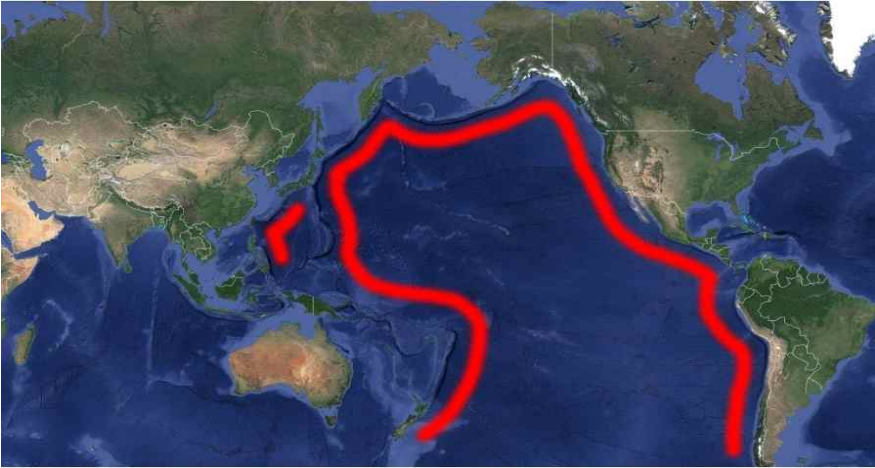
16. 집사님은 지금 안수집사님으로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00 %중 50%정도 임무 수행중
17. 말씀중 나를 가장 찢리게 하는 말씀
잠언서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18. 신앙의 각오
기도하자, 기도해야 살 수 있다
19.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 성구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0.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더 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기도의 은사
21. 나의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나의 마음, 욕심, 죄악된 나의 모습
22. 내가 삼손이라면 드릴라에게 한마디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닌가유? ^^
23. 교회는 () 이다
우리 집
24. 믿음은 () 이다
울인
25. 나중에 장로님 피택 받으실 때 몇 프로 예상하세요?
턱걸이에서 조금 이상,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투표받도록 하겠습니다.
26. 장로의 자리와 일익의 돈중 선택한다면?
당연히 장로의 자리시겠지요?
그럼 몇 분 몇 초 갈등하실까요?
바로입니다.
27. 목사님께 한 말씀
건강에 유의하세요. 목사님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28. 올 해 말에 연말 시상 때 바라는 상이 있으시다면?
구역시상입니다.

<이달에 issue>

불의 고리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태풍, 가뭄, 한파, 홍수, 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해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최근에 가장 큰 자연재해는 지진이라 볼 수 있다. 그중 일본과 에콰도르는 규모가 7.0이상에 이르는 지진이 일어나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나마 일본은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잘되어있어 지진 후에 처리가 빨리 끝나가고 있지만 에콰도르의 경우 그런 대비책이 잘 마련되어있지 않아 현재도 사고 처리가 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진은 계속해서 전 세계인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중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불의 고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고리를 이루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온변화로 인해 전 세계에 홍수와 가뭄이 일어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호주는 가뭄으로 중남미는 홍수로 아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전 세계인들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더욱 깨어 기도해야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달의 새가족 소개>

박순옥 성도님



*누구의 인도?

임경아 성도의 인도로 교회에 오게 됨

*우리교회 분위기는?

서로 챙겨주고 아늑한 분위기 때문에 좋았고 목사님 설교에 항상 은혜 받고 정착함

*첫눈에 띄었던 분?

원재옥 권사님이 챙겨주시고 큰소리로 불러주셔서 좋았음
송미정 집사님의 구역예배에 매력을 느꼈음

*신앙생활 중 도전받은 것?

'교회 일꾼이 되자' 라는 교회 표어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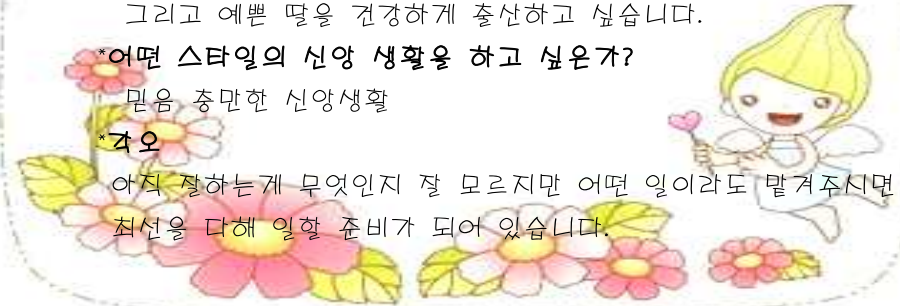
남편의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 건강
그리고 예쁜 딸을 건강하게 출산하고 싶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신앙 생활을 하고 싶은가?

믿음 충만한 신앙생활

*각오

아직 잘하는게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어떤 일이라도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 오면 제일 큰 목소리로 "집사님~!!"하고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순옥 자매입니다.

우리교회 나온 지 7개월째 되는 박순옥 자매는 첫 신앙이 우리교회지만 기도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공부를 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음의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살며시 부끄러운 듯 셋째를 임신한 소식을 전하십니다.

축복의 열매라며 무척 기뻐하시니 저희도 기쁘네요.

박순옥 자매님 축하드리고 늘 씩씩한 모습으로 성도들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달의 신앙서적 소개

A.W.토저의 『하나님을 추구하라』

A.W.토저의 『인간을 추구하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추구하라!

온통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기운을 북돋우는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갈망하는 이들의 수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실재를 열망합니다. 진리의 정확한 ‘해석’만 듣는 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목말라하며, ‘생수의 샘’에서 흠뻑 마실 때까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신앙의 지평선에서 탐지해 낼 수 있는 부흥의 유일한 조짐입니다. 이 갈망만이 수많은 영혼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빛나는 경이,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라진 경이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망을 인지해야 합니다. 현재 복음주의는 제단을 쌓고 제물의 각을 떠 놓고서도, 제단 돌의 수를 세며 각 뜯 조각들을 재배치하는 데만 만족할 뿐, 저 높은 갈멜산 꼭대기에 임했던 불의 표적이 없다는 사실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신경 쓰는 이들이 적게나마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시편 기자들이 노래했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사무치는 감미로움”을 직접 맛보길 갈망합니다.

이 책은 굶주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한 겸손한 시도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 마음이 가장 즐겁고 놀라운 영적 실재로 찾아낸 것들이라는 점에서만 새로운 뿐, 다른 점에서는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저보다 앞서 이 거룩한 신비에 훨씬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제 불꽃 또한 크지는 않아도 진정한 것이기에, 이 불꽃으로 자신의 영혼에 불을 붙일 이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자의 말 중에서



아침을 먹어야 하는 이유~~

오늘은 아침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하루를 견디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조금 더 자고 싶어서 소화가 안되서 라는 다양한 핑계로 저희들은 식사를 거르고 있어요.

이러한 행동들이 얼마나 건강에 좋지 않은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모르고 지냈는데 알게 되니 모든

성도님들께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은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정말로 뇌활성에 도움을 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더 없이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식사를 거르면 아침에 섭취해야 될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데 그 영양소는 점심이나 저녁식사에서는 보충되지 않아 영양소 부족으로 컨디션과 뇌에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ㅎㅎㅎㅎ

그리고 저와 같이 살이 빠지길 원하는 여성분들도!

절대적으로 좋지 않은 식습관이 아침식사를 안하는 것이지요~

아침을 먹어야 하는 이유로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아무리 총 열량이 같다고 해도 점심과 저녁만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요즘 신경질 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집중하고 주의 깊게 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당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때 식사를 걸러서 섭취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쉽게 피로가 몰려오고 성질이 급해져 화를 잘 나게 한다고 해요!!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답니다!

장수의 필수 조건이 식습관인데 오래 건강하게 사시려면 식사를 거르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래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도 실천하기 어렵다는거 알지만 이렇게 방치하고 지나가다가 언제 아플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이니 지금 부터라도

아침을 먹어야 하는 이유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교회 행사



4월 24일
은혜로운 우리교회 찬양예배



5월 8일 야외예배



5월 15일
리브가헌신예배



5월 19일
효도관광



5월 22일 부부헌신예배

◎ 6월 교회행사

1. 한나여선교회 헌신예배 / 6월 5일
2. 목회 탐방 / 6월 13일~17일
3. 요한남선교회 / 6월 19일
4. 제직 세미나 / 6월 28일

◎ 공지사항

1. 제6차 성지순례 - 2017년 2월 20일~28일 예정
이스라엘, 요르단
경비 300만원(공동경비포함)
2. 교회 성전현관 리모델링
3. 장마철 대비 공사 - 옥상방수, 건물발수제 작업
5월 30일

◎ 이달의 교우소식

1. 장례식 - 박선진집사 시부
2. 새가족등록 - 소종욱성도
윤경선성도
3. 목회신학세미나
한승권목사 - 6월 6일~9일
4. 군입대 훈련수료식 5월 23일
김병관청년



북한 여배우 출신 주순영 선교사 “北 동포 변화시킬 주역은 탈북민”

북한 여배우 출신으로 간증 사역을 펼치고 있는 주순영 선교사가 최근에는 활발한 해외 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탈북 이후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어 신학을 전공하고 방송선교 사역은 물론 간증집회 및 전도부흥회 3000여회를 인도한 주 선교사는 탈북여성들로 휘파람예술단과 그레이스찬양단을 구성, 찬양사역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 선교사의 활발한 북한실태 간증에 지난해 북한 관련 매체를 통해 인신공격성 자료가 발표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비난이 이어져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북측이 극한 용어까지 써가며 그녀를 비난했던 것.

“사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주의 종이 되어 열심히 사역하려는 제게 이 일은 악한 세력의 공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위 분들의 격려와 중보기도, 나 스스로 하나님께 매달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 선교사의 지나온 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 술한 고난의 가시밭길과 연단을 거쳐 주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은 현재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있다고 믿고 있다.

북에서 배우로 큰 명성을 얻었고 ‘고난의 행군’ 이후 외화벌이에 나섰던 주 선교사는 우연히 복음을 전해 듣고 크리스천이 됐다. 3년간 중국서 도피생활을 하다 두 차례 잡혀 북송도 당했지만 2003년 탈북에 성공,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많은 고난은 결국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북한식당 운영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다 모두 실패하고 이제 복음전도자가 된 것이 오히려 너무나 행복합니다.”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서 전문인선교학과를 졸업했고 총신 총회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전공, 석사 학위를 받은 주 선교사는 미국 솔로몬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선교학)도 받았다. 이제 충분한 신학적 토대를 갖고 자신이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셈이다.

“요즘 집회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령충만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능력과 용기, 긍휼과 평강,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주 선교사는 “시간이 갈수록 북한동포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솟구치는데 그 역할을 3만여명의 탈북자들이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복음통일의 가교가 될 탈북민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모은 돈이 북의 가족과 친척에게 전달되고 이것이 북한 시장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북한동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찬양으로 시작되는 그녀의 간증집회 주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충만’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광야의 삶 속에서 신사도행전의 기적을 체험케 만드시는 하나님,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자랑한다. 특히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시, 신자들의 마음에 결신과 결단의 동기를 확고히 만들어 주고 있다.

이처럼 주 선교사의 간증이 성도들에게 몽클한 감동과 은혜를 선사하는 이유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이 체험한 생생한 간증과 기적을 실감나게 증거하기 때문이다. 또 공훈배우답게 ‘반갑습니다’ ‘휘파람’ 등 북한가요를 반드시 부른다. 민족의 동질성을 음악을 통해서나마 회복시키겠다는 소원 때문이다.

그동안 탈북대안학교 학생들과 탈북대학생과 탈북민 2세 후원에 적극 나선 주 선교사는 “간증을 불러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국민일보 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사 명

무심코 지나쳤을 생의 한 가운데서
모든 시련 이겨 내고 새로운 희망의
포문을 열어 봅니다

주님의 소리 없는 음성이 내 영혼에
가슴 벅차 오르는 생명의 태동으로
새로운 삶에 꿈을 꾸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질 때
삶에 새로운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전히 내 안에 수많은 가시들이 있겠지만
나를 향하신 선하신 섭리 앞에
나의 계획과 욕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늘도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병철 장로